

주요개념 : 4년제 간호대학생, 3년제 간호대학생, 자기표출, 자아존중감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의 비교

이규은* · 하나선** · 이용미*** · 염영희**** · 이정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자신을 적절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김한준, 1986),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일종의 모험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동양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여 자신을 드러내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경거망동하거나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되는 반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과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일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타인으로부터 공감적 이해의 가능성과 의미 있는 대인관계가 촉진될 수도 있다(박선영, 1996).

자기표출을 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기능으로는 정서의 표출, 자기개념의 명료화, 사회적 타당화 기능이 있고, 표출을 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기능으로는 상대의 내적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획득, 사회적 지원요구의 유발, 대등한 수준의 자기표출, 상대에 대한 신뢰와 호감유발 기능이 있으며, 양자관계에 미치는 기능으로는 친밀한 관계로의 발전, 효율적인 상호교섭적 기억(transactive memory) 체계의 발달, 관계의 성질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표출은 표출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혹은 표출이 일어나는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교현, 1992a).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자신을 적절히 표출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보다 존경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자기표출적인 사람이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되기 마련이며 또한 자기를 기꺼이 드러낼 줄 알고 상황에 따라 역할에 변화를 기할 수 있는 대인관계적 기술이 대인관계의 적절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안범희, 1984).

간호학자인 Watson도 돌봄과학의 기초가 되는 10가지 돌봄의 요소 중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표현의 증진이 한 요소임을 확인하여 대상자와 간호사간에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대상자의 긍정적·부정적 감정에 대해 준비하는 것과 같은 대인적 속성이 돌봄의 중요한 근거임을 제시한 바 있다(김명애와 고성희, 1995). 그러므로 원만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가치를 솔직하고 적절하게 나타내는 능력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이란 자아를 긍정적 가치로써 인식하는 개념으로(Taft, 1985),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성취가능성이 높다(전병재, 1972). Rosenberg(1965)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자신감이 많고 인내력이 더 많으며 자기표현 능력과 잠재적 지도력, 지능과 숙련도,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이 높으며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은 모두 개방적인 대인관계와 성격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를 하나의 대인과정으로, 간호사가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고 볼 때(이미런, 1998), 간호교육과정에서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의 적절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홍경자 등, 1998에서 재인용), 간호학생에게 있어서 자기표출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간호교육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서일대학 간호과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한림정보산업대학 의무행정과

따라서 본 연구는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간호학생들의 교육 및 상담지도에 활용하고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 안에서 자기표출능력을 향상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량을 비교한다.
- 3)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다.
- 4) 표출대상에 따른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의 표출량을 비교한다.
- 5) 표출량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자기 표출

이론적 정의 : 자기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박선영, 1996).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Jourard와 Lasakow(1958)가 개발한 JSDQ(Jourard Self-Disclosure Questionnaire)를 노경란(1983)이 우리나라 대학생 실정에 적합하게 24문항으로 간략화하여 만든 도구로 측정된 자기표출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이론적 정의 :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이다(Gary & Kavanagh, 1991)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71)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한국인에 맞게 변안한 10문항의 도구로 측정된 자아존중감을 말한다.

II. 문헌고찰

1. 자기표출의 개념

자기표출(self-disclosure)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에 Jourard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Jourard와 Lasakow

(1958)에 의해 ‘자기자신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었다. 다른 학자들은 유사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회적 접근(social accessibility)’ 또는 ‘언어적 접근(verbal accessibility)’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1958년에 Jourard에 의해 자기표출질문지(Jourard Self-Disclosure Questionnaire : JSDQ)가 개발되고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주로 그 도구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자기표출’이라는 용어가 그러한 개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김원중, 1993).

Cozby(1973)는 자기표출을 ‘A라는 사람이 자기자신의 생각, 욕구, 감정 등에 관한 정보를 B에게 언어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으로, Halverson과 Shore(1969)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Sermat와 Smith(1973)는 ‘자신이 노출하지 않으면 타인이 알 수 없거나 혹은 타인이 물어본다고 해서 다 말할 것 같지 않은 내용’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자기표출이란 비밀스러운 정보를 의도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재창(1992)은 “나의 생각·느낌·선호·상상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자기표출은 인간관계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혹은 일종의 성격의 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이형득, 1988)

2. 자기표출의 중요성

자기표출은 정신건강 및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는데 Jourard(1964)는 정신적인 병이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의 육체적인 병은 개인이 자기자신을 표출하지 않거나 자신의 중요한 면들을 숨김으로써 일어나는 피로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Hood와 Back(1971)은 비록 언어적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발산되는 일시적인 효과라고 할지라도 자기표출은 개인의 욕구나 감정을 털어놓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정화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정신건강의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Pernebaker(1992)는 외상적 사건을 타인에게 고백하거나 고백하지 않는 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억제하고 있는 외상적 사건은 수년간이나 혹은 심지어 십 여년에 걸쳐서 강박적 사고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질병을 유발함을 밝혔다. Stiles(1987)도 자기의 고통을 타인에게 성공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유래하는 원초적인 안도감이 존재한

다고 본다. 그는 강한 스트레스 유발 사건들은 '병주동이 까지 가득 찬 듯한' 압박감을 유발하여 이런 압박감은 흔히 분노, 실망, 공포 및 후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되고 이런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가슴에서 내려놓는 듯한' 정화감을 맛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기표출의 양과 관련해서 Cozby(1973)는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환경 속에서 소수의 중요한 타인에게 특징적으로 높은 표출을 하고 보통 타인에게는 중간 정도의 표출을 한다고 하였으며 잘 적응하지 못한 개인은 사회 환경 속의 모든 사람에게 높은 표출 혹은 낮은 표출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Chaikin과 Derlega(1974)의 연구에서도 타인들에게 노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신 건강이 좋다고 판단되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는데 낯선 사람이나 안면만 있는 사람에게 매우 사적인 자기를 많이 표출하는 사람은 관찰자에 의해 부적응적인 사람으로 평가됨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표출할 대상과 상황을 잘 식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May와 Thompson(1973)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중요한 상대에게 많은 표출을 하고 보통 일반인에게 중간 정도의 표출을 하는데 비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환경 속의 모든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표출 혹은 지나치게 적은 표출을 보인다고 해서 자기표출과 정신건강은 직선관계가 아니라 곡선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표출은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증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Halverson과 Shore(1969)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드러내고 이야기 하는 가운데 자기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기표출은 개인의 성격특성인 동시에 대인관계에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유지 발달의 측면에서도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박선영, 1996).

Altman과 Taylor(1973)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의 발달은 인간상호간에 더 많은 개인적 정보를 줄 때 가능해 진다고 하였는데 Jourard와 Lasakow(1958)도 자신의 부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모들에게 자기표출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성효과는 상담활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상담과정에서의 자기표출은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도 본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된다. 특히 내담자의 어떤 문제는 자기표출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자기표출을 잘 함으로써 해결되기도 한다(Berg, 1987). Haffman과 Spencer(1977)도 내담자들과 유사한 내용을 표출한 상담자들이 보다

유능하고 따뜻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또한 표출내용 중에서도 부정적 내용을 표출한 상담자를 긍정적 상담자보다 더 공감적이고 따뜻한 것으로 여겼다. 상담자의 자기개방은 내담자와의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며 보다 나아가서는 먼저 자기표출을 하게 되면 내담자에게 더 호감을 주게 되고 내담자의 정직함과 상호신뢰감을 발달시키게 되어 내담자의 자기표출을 증진시킬 수 있기도 하다(Dowd & Boroto, 1982).

자기표출과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교현(1992 b)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교관계에서의 자기표출 경험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서표출이 자기표출의 가장 일차적인 기능으로 나타났다. 즉 남, 여 대학생들은 자기표출을 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유를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를 들고 있으며, 자기표출을 한 뒤에는 '속이 편안하고 후련해졌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자기표출이 정서표출의 순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와의 관계에서 부가적인 갈등을 일으키거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충동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정서표출의 순기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진실성과 감정적인 생활함을 갖추고 정서를 가장하거나 지나치게 억제시켜 표현하게 되면 정화효과를 지니지 못할 수 있다(김교현, 1992 b).

또한 간호학에서 자기표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정신질환자(김문영, 1987), 정신간호사(김지영, 1995), 간호학생(이미련, 1998)을 대상으로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보았거나, 간호사와 환자관계에서 자기표출의 효과(김문실, 1984)를 측정하였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 및 인정을 받고자 하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길 원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Stuart(1983)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행동이 이상적 자기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여 얻어지는 자기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라 하였다.

흔히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아개념(self-concept)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을 자아개념의 한 구성요소 또는 한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송대현, 1993).

Taft(1985)는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적 측면으로 자아개념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한

다면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영역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Weiten(1986)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합성 또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규정하면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라고 보았다.

Breyspraak와 George(1982)는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 사이의 차이는 자기인식의 정서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은 자기의 평가나 판단에 수반되는 감정으로써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과 되고자 소망하는 이상적인 모습과의 비교로부터 뚜렷해지고 수준의 고저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에 비해 자아개념은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인식이며 자기 묘사에서 나타난 자기의 지적 구성요소라고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자아개념이 부정적일수록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다. Rawlins 등(1993)은 자아존중감에 장애가 나타났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새로운 일이나 상황을 시도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표현한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일처리를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강화하고,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킨다. 또한 비난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며, 과대망상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Cronch(1983)는 자아존중감은 인생초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비교적 변하지 않는 토대에서 형성되는 기초적 자아존중감과 인생후기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계속되는 평가를 통해 발전되는 기능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적 자아존중감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고 실제로 기초적 자아존중감을 능가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성인에서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사회작용의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osenberg(1965)가 5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은 사람들의 인성적 특성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상태를 보였으며 학업성취수준도 낮았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능이 자기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많고 인내력이 더 많으며 자기표현 능력과 잠재적 지도력, 지능과 숙련도,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 등이 높으며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었다. 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대학생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과 성적은 별 관계가 없으나(박호란 등, 1991), 졸업 전 취업시기에 정보수집이나 취업면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Wortman & Loftus, 1985; 박호란 등, 1991). 또한 안황란과 배행자(1994)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RET(Rational Emotive Therapy)집단훈련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상승하여 간호과 학생 실습시 적응과 성숙을 위해 자아존중감 증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한 4년제 대학, 6개교에 재학중인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 4학년 297명과 3년제 전문대학, 5개교에 재학중인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2. 3학년 3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 자기표출

Jourard와 Lasakow(1988)이 개발한 JSDQ(Jourard Self-Disclosure Questionnaire)도구를 노경란(1983)이 우리 나라 대학생 실정에 적합하게 24문항으로 간략화한 도구로 자신의 개인적 사실을 어느 정도 말하는가에 따라 '거의 안 함(1점)'에서 '말을 잘함(5점)'까지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62$ 였다.

2) 자아존중감

Rosenberg(1971)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한국인에 맞게 변안한 10문항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로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을 역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값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90$ 이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1999년 9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총 700부를 배부하여 69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28부를 제외한 662(94.6%)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PC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4년제와 3년제 대학생간의 일반적 특성은 χ^2 검정으로, 4년제 대학생과 3년제 대학생간의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의 문항별 검정, 자기표출량의 차이,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각각 t검정하였으며,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은 4년제 대학에 297명, 3년제 대학에 365명이 재학 중이었는데 이를 다시 학년별로 구분하여 보면 4년제 대학 4학년에 144명(21.8%), 3학년에 153명(23.1%), 3년제 전문대학 3학년에 184명(27.8%), 2학년에 181명(27.3%)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4년제와 3년제 대학생간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 = 18.39$, $p = .001$) 4년제 대학생이 3년제에 비해 천주교 신자가 많은 반면 3년제 대학생은 4년제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입학동기에서 4년제 대학생과 3년제간에 똑같이 취직, 타인의 권유, 적성, 고교성적, 봉사, 간호사에 대한 인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4년제 대학생이 고교성적과 봉사에서 3년제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 = 22.96$, $p = .001$).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chi^2 = 6.52$,

$p = .038$) 4년제 간호대학생에서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에 대해 학생들이 회의를 느끼거나 흥미를 잃는 일이 많다고 지적되는데 이는 이론과 이상을 추구하는 학교실습과 현실을 추구하는 임상실습사이에서 오는 충격이라 볼 수 있다(김미자, 1981; 김주희, 1982). 반면 지난 학기 학업성적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2. 4년제와 3년제 대학생간의 자기표출

자기표출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4년제 대학생들이 3년제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달에 받는 나의 용돈 액수', '종교에 대한 나의 의견', '내가 좋아하는 음악', '공부(일)하는데 가장 힘든 것', '현재 내가 빛을 지고 있는 여부', '현재 나의 정치적 생각이나 견해', '지금 나의 건강문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TV종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곳', '술, 담배에 대한 나의 태도와 견해', '과거 나의 용모에 대해 가졌던 문제나 걱정거리', '여가 선용방법', '부모의 경제적 형편', '바람직한 여성상' 등의 문항에서 4년제 대학생이 3년제보다 유의하게 높은 표출을 보였다(표 2).

이는 박선영(199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문제', '열등감 문제', '앞으로 할 일'에 있어서의 표출이 '대인관계' '이성문제'에 있어서의 표출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Jourard와 Lasakow(1958)도 대학생들이 표출하는 정보는 주로 직업, 태도, 흥미, 공부 등에 관한 것임을 발견하여 취미나 일과 같은 비교적 일상적인 화제에서는 노출량이 많았고 금전문제, 성격, 신체 등 매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노출량이 적었다(노경란, 1983)는 보고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3. 표출대상에 따른 4년제와 3년제 대학생간의 자기표출량

표출대상에 따른 자기 표출량은 동성친구, 어머니, 이성친구, 아버지의 순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표출을 하는 대상은 동성친구였고 가장 적은 표출을 한 대상은 아버지였다. 아버지 대한 표출점수에서 4년제 대학생들이 72.17점을 나타낸 반면 3년제 대학생들은 63.83점을 나타내 큰 차이($t = 17.30$, $p = .0001$)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표출점수에서 4년제 대학생들이 84.64점을 보인 반면 3년제 대학생들은 79.19점을 보였다($t = 9.86$, $p = .0018$). 그러나 동성친구나 이성친구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생들이 3년제보다 많이 표출을 했으나 유의

〈표 1〉 4년제와 3년제 대학생간의 일반적 특성 비교

특 성	구 분	실 수		χ^2	P
		4년제 대학 N(%)	3년제 대학 N(%)		
종 교	기독교	111(16.77)	115(17.37)	18.39	.001
	천주교	43(6.49)	25(3.78)		
	불 교	39(5.89)	46(6.95)		
	무	100(15.11)	172(25.98)		
	기 타	4(0.60)	7(1.06)		
지난학기 학업성적	평균 4.0 이상	47(7.10)	35(5.29)	5.61	.060
	평균 3.0~3.9	215(32.47)	282(42.60)		
	평균 2.0~2.9	35(5.29)	48(7.25)		
입학동기	취 직	101(15.26)	160(24.17)	22.96	.001
	적 성	42(6.34)	66(9.97)		
	고교성적	33(4.99)	19(2.88)		
	타인의 권유	79(11.93)	96(14.50)		
	봉 사	30(4.53)	14(2.11)		
	간호사에 대한 인상	12(1.81)	10(1.51)		
	전공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123(18.58)		
그저 그렇다	149(22.51)	173(26.13)			
불만족한다	25(3.78)	21(3.17)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66(9.97)	110(16.62)	6.52	.038
	그저 그렇다	183(27.64)	212(32.02)		
	불만족한다	48(7.25)	43(6.50)		
		297	365		

한 차이는 없었다(표 3). 이러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경란(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Rubin(1970)은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동성친구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자기표출 행동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녀의 사회화 과정과 성역할의 스테레오 타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원중(1993)도 남자와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사회로부터 서로 다른 기대 하에 - 예컨대 남자아이는 울지 않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이고, 느끼기보다는 행동하기를, 여자아이는 호전적이지 않고, 타인을 돌보며, 행동하기보다는 느끼기를 기대 받는다 -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양육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성에 따라 남녀 성역할의 정형(스테레오 타입)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표출이 적은 것은 아마도 아버지와는 접촉의 기회가 적고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져 자연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자기표출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한 결과(이미런, 1998)와도 비슷했다. 또한 표출 대상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표출대상에서 4년제 대학생들이 3년제보다 높은 표출정도를 나타냈는데($t=9.42, p=.0022$), 이는 Rickers-Ovsiankina(1956)가 대학신입생에서 4학년까지 표출량이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대학생활이 개인에게 대인관계의 증진을 주며 이 시기 동안 이성이나 동성간에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과 4년제 대학생의 수업연한이 3년제 대학생보다 길며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율성, 지도력,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자기표출의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간의 자기표출

문 항	4년제 대학	3년제 대학	t	P
	Mean±S.D	Mean±S.D		
1. 내가 좋아하는 음식	16.42±3.37	15.69±3.52	7.34	.0069
2. 한달에 받는 나의 용돈의 액수	14.15±4.17	13.09±4.52	9.51	.0021
3. 나의 장래 계획과 목표	14.23±3.81	13.81±3.96	1.94	.1639
4. 종교(혹은 신앙생활)에 대한 나의 의견	11.48±5.25	9.89±5.25	14.71	.0001
5. 현재 나의 성적(性的)문제에 관한 이야기	9.91±4.23	9.32±3.84	3.46	.0632
6. 나의 얼굴에서 싫어하는 부분	13.43±4.59	13.59±4.61	0.21	.6499
7. 내가 좋아하는 음악(클래식, 팝송 등의 종류)	13.37±4.21	12.54±4.31	6.22	.0129
8. 공부(일)하는데 가장 힘든 것	13.59±3.95	12.91±3.92	4.80	.0288
9. 현재 내가 빛을 지고 있는 여부	10.82±5.21	9.53±5.01	9.94	.0017
10. 현재 나의 정치적 생각이나 견해	10.92±4.61	9.26±4.74	20.27	.0001
11. 나의 성격상 결점	13.55±4.04	12.95±3.97	3.66	.0563
12. 지금 나의 건강문제(불면증, 편두통 등)	14.24±4.30	13.39±4.42	6.10	.0138
13.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TV 종류	14.37±4.01	13.67±4.03	5.03	.0252
14. 내가 택한 전공분야(직업)에 대한 느낌(만족하는지, 안하는지)	14.80±3.97	14.38±4.12	1.75	.1865
15.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곳	13.27±4.00	12.54±4.25	4.90	.0272
16. 술, 담배에 대한 나의 태도와 견해	14.50±4.41	13.09±4.90	14.62	.0001
17.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죄의식	10.06±4.41	9.52±4.15	2.53	.1121
18. 과거 나의 용모에 대해 가졌던 문제나 걱정거리	12.66±4.26	11.88±4.36	5.38	.0207
19. 여가 선용방법(도서, 스포츠, 피아노 등)	13.97±4.15	12.62±4.34	16.43	.0001
20. 학교 성적에 대한 나의 느낌	12.78±4.45	12.47±4.16	0.82	.3653
21. 부모의 경제적 형편	12.32±4.34	11.47±4.31	6.27	.0125
22. 바람직한 남성상(여성상)	13.92±4.22	13.21±4.37	4.47	.0349
23. 나의 가정생활이 행복한가의 여부	13.20±4.41	12.62±4.56	2.74	.3653
24. 나의 신체적인 결함(어느 부분이던 간에)	12.55±4.37	12.27±4.66	0.61	.4337
	316.27±75.88	297.59±74.51	9.42	.0022

〈표 3〉 4년제와 3년제 대학생의 표출대상별 자기표출량

구 분	4년제	3년제	t	P
	Mean±SD	Mean±SD		
아버지	72.17±23.89	63.83±24.01	17.30	.0001
어머니	84.64±20.82	79.79±20.97	9.86	.0018
동성친구	90.08±17.01	88.50±19.09	1.11	.2923
이성친구	79.13±23.32	77.63±21.57	0.59	.4443

(표 4).

4. 4년제와 3년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4년제 대학생들이 3년제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5.24, p=.0224$). 특히,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두 문항에서는 4년제 대학생과 3년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아를 긍정적인 가치로써 인식하는 개념으로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성취 가능성이 높다(전병재, 1972).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료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삶에 대해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김금숙,

〈표 4〉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간의 자아존중감

문 항	4년제 대학	3년제 대학	t	P
	Mean±S.D	Mean±S.D		
1.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4.03±0.85	3.92±0.85	7.02	.0082
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4.57±0.64	4.43±0.76	2.44	.1184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잘 할수 있다.	4.32±0.80	4.28±0.79	0.61	.4342
*4.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4.00±0.97	3.96±0.95	5.29	.0218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3.46±1.07	3.31±1.02	3.50	.0618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3.99±1.05	3.79±1.09	0.27	.6023
7.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3.82±0.98	3.68±1.00	3.35	.0675
*8.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4.17±0.89	4.13±0.91	0.31	.5762
*9. 나는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3.51±1.18	3.44±1.21	0.76	.3851
*10.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3±1.16	3.15±1.18	0.05	.8210
	38.99±5.60	38.00±5.45	5.24	.0224

* 문항은 역문항임

1984). 특히 간호학생이 지닌 자아존중감은 자신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시에 환자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안황란과 배행자, 1995), 궁극적으로 임상간호사의 간호의 질 향상에도 관계되므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4년제 대학생이 3년제 대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대학생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학문에 대한 정채감이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간에 매우 높은 순상관 관계를 나타내어($r=.2628, p=.0001$) 자기표출을 잘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보여주었다(표 5).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효과적인 치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간호학생에게 매우 중요하다(안황란과 배행자, 1994). Cozby(1973)도 자기표출을 잘 하게 되면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 해시킬 수 있게 되어 결국 원만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순(1991)도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존중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자신있게 환자와 자주 만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간호사는 그렇지 못한 간호사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간호는 대상자와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학문영역이며 간호사가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촉진자로서 혹은 상담자로서 역할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치료적 관계수립에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Kasch, 1986). 그러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자기표출 능력을 확인하여 자연스럽게 자기표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자기표출(P)
자아존중감	.2628(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9년 9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6개 4년제 간호학과 학생 297명과 5개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을 비교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도구는 자기표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Jourard와 Lasakow(1958)가 개발한 JDSQ를 노경란(1983)이 간략화시킨 24문항의 도구를 이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71)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재(1974)가 빈안한 1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PC*를 이용하여 χ^2 검정, t검정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간의 일반적 특성에서 종교($p=.001$), 입학동기($p=.001$),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p=.03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난 학기 학업 성적,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4년제 간호대학생이 3년제에 비해 자기표출 정도가 높았으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 달에 받는 나의 용돈 액수', '종교에 대한 나의 의견', '내가 좋아하는 음악', '공부(일)하는 데 가장 힘든 것', '현재 내가 밋을 지고 있는 여부', '현재 나의 정치적 생각이나 견해', '지금 나의 건강문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TV종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곳', '술, 담배에 대한 나의 태도와 견해', '과거 나의 외모에 대해 가졌던 문제나 걱정거리', '부모의 경제적 형편', '바람직한 여성상' 등의 문항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연구대상자들은 동성친구, 어머니, 이성친구, 아버지의 순으로 자기표출을 하였고, 4년제 간호대학생이 3년제에 비해 아버지($p=.0001$), 어머니($p=.0018$)에게 더 많은 표출을 하였다.
4. 4년제 간호대학생은 3년제에 비해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았다($p=.0224$).
5. 자기 표출과 자아존중감간에는 유의한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r=.2628, p=.0001$).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학생들에게 자기표출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교육 과정 안에 통합시켜야 하겠다.

2. 4년제 간호학생들의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으므로 간호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제요인의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금숙 (1984). 산업체학교 여학생의 자아개념, 학업성취도 및 직장업무 적응간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 (1992 a).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1(1), 81-107.
- 김교현 (1992 b). 친교관계에서의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1(1), 196-222.
- 김명애, 고성희 (1995). 간호이론, 서울 ; 현문사.
- 김미자 (1981). 현실충격. 대한간호, 20(4).
- 김문실 (1984). 축진적 관계형성 교육이 간호원의 돕는 행위와 환자의 자기노출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영 (1987). 정신질환자의 자기노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김원중 (1993). 상담자 자아개방이 관찰자의 상담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희 (1982).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대한간호, 11(2), 45-57.
- 김지영 (1995). 정신간호사의 공감정도와 자기노출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준 (1986). 자기노출과 적응성과의 관계. 심리학연구, 14, 1-7.
- 노경란 (1983). 자기노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1996). 상담자의 자기표출유형이 내담자의 자기표출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호란, 송경애, 김남숙, 김명자, 문영임 (1991).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가톨릭간호, 12, 24-33.
- 송대현 (1993). 심리학에서 본 자존심. 서울 ; 성원사.
- 안병희 (1984). 대인관계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황란, 배행자 (1994). RET 집단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3(2), 11-27.
- 안황란, 배행자 (1995). 자기이해와 가족체제 기능화 집단요법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4(2), 38-59.
- 이미련 (1998). 자기노출과 소외와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7(1), 136-150.
- 이경순 역 (1991). 자아존중감 : 간호사들의 문제. 대한간호, 30(1), 46-50.
- 이형득 (1989). 생리적 성, 선정체감 및 표현상황이 아동의 자기표출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병재 (1972). 자아개념 이론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 29, 103.
- 전병재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홍경자, 홍여신, 이은옥, 박정호, 이소우, 서문자, 최명애, 이명선, 이인숙 (1998). 학부교과과 정 개편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집, 12(2), 258~279.
- Altman, I & Taylor, D.(1973). Social Penetration :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 Hofl, Rinehart & Winston.
- Berg, J. H. (1987). Responsiveness and self-disclosure, In V. J Derlega & J H Berg(Eds), Self-Disclosure :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 Y : Plenum Press.
- Breytspraak, L. M. & George, L. K. (1982).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D Mangen & W. Peterson (Eds.). Clinical and social Psychology.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 Chaikin, A. C. & Derlega, V. J. (1974). Linking for the norm-breaker in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42, 117-129.
- Cozby, P. C. (1973). Self-disclosure ;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73-91.
- Cronch, M. A. (1983). Enhancement of self-esteem through the life span. Family and Community Health, 6(2), 11-28.
- Dowd, E. T. & Boroto, D. R. (1982). Differential effects of counselor self-disclosure self-involving statement and

- interpre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8-13.
- Gary, F. & Kavanagh C. K. (1991).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Lippincott.
- Halverson, C. G. & Shore, R. E. (1969).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213-217.
- Hoffman, M. A. & Spencer, G. P. (1977). Effect of interviewer self-disclosure and interviewer-subject sex pairing on perceived and actual subject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383-390.
- Hood, T. C. & Back, K. W. (1971). Self-disclosure and the volunteer : A source of bias in laboratory experi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130~ 136.
- Jourard, S. M. (1964). The transparent self. Princeton, N. J : Van Nostrand.
- Jourard, S. M. & Lasakow, P. (1958).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 91-98.
- Kasch, C. R. (1986). Toward a theory of nursing action : the pross of nurse-patient interaction. Nursing Research, 35(4), 226-230.
- May, O. P. & Thompson, C. L.(1973). Perceived levels of self-disclosure mental health and helpfulness of group lead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4), 349-352.
- Pennebaker, J. W. (1992). Inhibition as the linchpin on health. In H. S Friedman(Ed), Hostility, Coping & Health.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wlins, R. P., Williams, S. R. & Beck, C. K. (1993). Mental Health Psychiatric Nursing(3rd). Mosby, St Louice.
- Rickers-Ovsiankina, M. A.(1956). Social accessibility in three group. Psychological Report, 283-29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Z. (1970). Measurement of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265-273.
- Sernat, V. & Smith, M. (1973). Content analysis of verbal communication in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 conditions influencing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32-346.
- Stiles, W. B. (1987). I have to talk somebody : A fever model of disclosure. In V. J. Derlega & J. H. Berg(Eds), Self-disclosure. New York : Plenum Press.
- Stuart, S. (1983).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 Mosby.
- Taft, L. B.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 A nursing perspectives. Advanced Nursing Science, 8(1), 77~84.
- Weiten, W. (1986). 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2nd ed). Monterey, California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Wortman, C. B & Loftus, E. F.(1985). Psychology(2nd), Alfred A, Knopf. New York.

- Abstract

Key concept : nursing student, self-disclosure, self-esteem

Comparison of Self-disclosure and Self-esteem between Baccalaureate and Associate Degree of Nursing Students.

Lee, Kyu Eun · Ha, Na sun** · Lee, Yong Mi*** · Yom, Young Hee**** · Yee, Jung 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lf-disclosure and self-esteem of senior nursing students in two types of nursing education programs : baccalaureate and associate programs.

The subjects were comprised of 365 associate degree nursing students from five junior college and 297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Seoil college)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Dept. of Medical and Hospital Administration, Hallym College of Information and Industry

baccalaureate degree nursing students from six univers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conveniently by self reporting questionnaires given to the students from september 13 to october 23, 1999.

The instruments used JSDQ and Self-esteem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SAS/PC⁺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igion($p=.001$), motive of entrance of college($p=.001$) and satisfaction of nursing practice($p=.038$) between baccalaureate degree nursing students and associate degree.
2. The extent of self-disclosure in baccalaureate degree nursing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associate degree nursing students($p=.0022$).
3. An object for self-disclosure were girlfriend, mother, boyfriend and father successively.
4. The extent of self-esteem in baccalaureate degree nursing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associate degree($p=.0224$).
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self-esteem revealed a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 ($r=.2628$, $p=.0001$).